

# 낙안읍성 전통민가의 배치 및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Building Layout and Exterior Space of Folk Housing in Nak-An Village

김 시 예\*      천 득 염\*\*      유 우 상\*\*\*  
Kim, Si-Ye    Cheon, Deuk-Youm    Yoo, Uoo-Sang

### Abstract

There have been numerous researches on Nak-An village in Jeollanamdo,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raditional castle village in Korea. Most of them have dealt with general and physical architectural scale and features separate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building layout and exterior space and the relations between street system and dwelling unit of folk houses in Nak-An village. The study examined houses of ordinary people in Nak-An village constructed before the village was not affected by foreign influences. 36 folk houses in Nak-An built from nineteenth century to early twentieth century and believed to have few physical changes from the original floor plans and architectural forms were the subjects to be analyzed.

The most popular types in building layout are "Open L" and "Open U". The most typical orientation of main building is Southwest. The favorable entry into the dwelling lot is from the side. The street system in the village consists of main streets of South-North, resulting in dwelling lots with North-South axis most general. This site condition forces the entry into the lot from North main street and the side access to the main building. From these findings, the building layout and the entry into the dwelling lot of folk houses in Nak-An are strongly related with street system and conditions of dwelling lot.

키워드 : 전통민가, 배치유형, 가로체계, 외부공간, 낙안읍성

Keyword : Folk Housing, Building Layout, Street System, Exterior Space, Nak-An Villag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낙안읍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써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중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개선 방안, 전통주거문화에 관한 민속학, 전통적 경관보존에 관한 건축의 피상적이고 전반적인 규모와 배치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 형성에 있어서 주거공간과 이를 둘러싼 주거지 조직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시켜주는 가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거지 내에 존재하는 주거공간과 가로와의 관계는 각각 독립된 구성요소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공간의 배치와 이를 둘러싼 외부공간 그리고 읍성의 가로체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의 주거공간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낙안읍성 성내의 전통민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 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에 나타난 특징 및 가로와 주거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전통민가의 보존이나 복원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전통양식을 담고 있으며 이민족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리라 판단되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건립된<sup>1)</sup>되어 건축적 평면의 형태가 잘 남아있는 36채 가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36채는 성내 가옥의 규모에 따른 안채의 연대 조사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대표성을 지닌다.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수로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0첨단도시 B01)에 의해 수행되었다.

1) 조선 중기 임진왜란(1592)으로 한 동안 마을에 백성을 찾아보고 힘들었고 마을은 당연히 훼손 되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동학농민운동(1894)과 한국전쟁(1950) 등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건립된 것만이 현존함으로 통시적으로 건축적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Table 1.) 그러나 낙안읍성민속마을의 민가는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응하며 발전되어왔으며, 20세기 초까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체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후기 낙안읍성민속마을 민가의 공시적 비교·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건축적 특징을 유도한 원인을 낙안읍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들로 설명가능하다고 생각한다.

Table 1. The building date of main building of folk housing in Nak-an Village (The cement structures are ruled out from research subjects)

건립연도 규모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2칸 가옥	1	1								2
3칸 가옥		2		4	4	2	5	8	6	31
4칸 가옥			2	6	5	12	13	8		46
5칸 가옥			1	1	1	1	5	1		10
6칸 가옥						1	2			4
합 계	1	3	3	11	10	16	25	18	6	93

Table 2. The building date of main building of research subjects

건립연도 규모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2칸 가옥	1	1								2
3칸 가옥		1		3	3	1	1			9
4칸 가옥			1	6	4	7	2			20
5칸 가옥			1	1	2					4
6칸 가옥							1			1

연구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 도출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기존의 선행되었던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배치 특성을 이루는 기본요소라고 판단 되는 배치형식, 대문의 좌향 및 안채와의 관계, 진입방식, 외부공간 구성 등의 사항들을 정하고, 각 사항별로 나타나는 분포 사항을 파악하여, 이 요소들이 낙안읍성 전통민가 배치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 2. 낙안읍성의 배경

### 2-1. 역사적 변천과정

고려 후기에 낙안의 치소는 해안과 인접해 있었으나,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고 이 일대가 텅 빌 정도였다.<sup>2)</sup> 낙안의 수령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잡기위해 치소를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낙안면 소재지로 옮겨왔으며 토성으로 축조하였다. 이때에 쌓았던 토성은 성곽이 낮고 규모가 작아

왜변에 취약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1424년(세종6) 성터를 넓히면서 석재를 이용하여 축성된 석성<sup>3)</sup>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내륙으로 옮긴 낙안의 치소는 산지사이로 형성된 분지로써 산세사이로 형성된 물줄기로 인하여 수자원이 풍부하며, 이 물줄기 주변에는 비옥한 충적지가 형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분지는 자급자족성 농경문화를 형성하기 좋은 조건이며, 사람들이 모여 전통 촌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치 공간을 자리하게 된다.<sup>4)</sup>

조선 말기 낙안의 인구는 9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일제시대 강제동원과 이주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낙안읍성만 보아도 1970년대에는 1321명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202명으로 감소하였다. 근대에 들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일제의 개입으로 공공시설과 도로망 등의 교통시설이 개설되었으며, 그 결과 5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마을 공간구조의 변형이 초래되었다. 낙안초등학교의 설립으로 경관 구조가 변형되었고,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역사경관으로 정착되어가던 마을 경관을 일시에 마을 형성 초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1970년, 정부는 근대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새마을 사업’ 이후 1979년 조사 당시 약80%가 슬레이트와 시멘트기와로 바꾸었다. 1980년대에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마을의 보존과 정비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건축행위가 극도로 제한되었고 이러한 제한된 개발로 인한 정체 현상은 마을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sup>5)</sup>

마을의 보존과 보수정비계획은 계속 진행되었는데 1984년 낙안읍성마을의 현황 파악 조사자료<sup>6)</sup>를 토대로 보수와 보존 및 정비의 순위가 결정되었다. 옛 치소에 위치한 낙안초등학교를 성 밖으로 이전시키고 관아와 객사의 복원 그리고 성곽의 보수복원을 통해 읍성 구조의 원형을 복원시키려 노력하였다.

### 2-2. 마을의 현황

낙안읍성은 남방의 형승지로 칭하던 곳으로써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백성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터전으로,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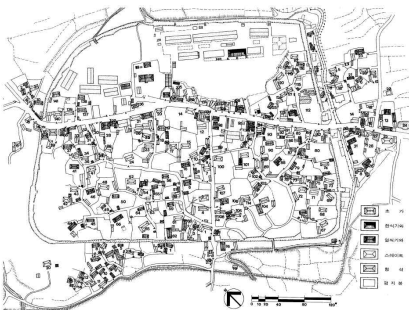


Figure 1. Site map of Nak-an Village in 1983 (Detailed status summary investigation report of Nak-an Folk Village in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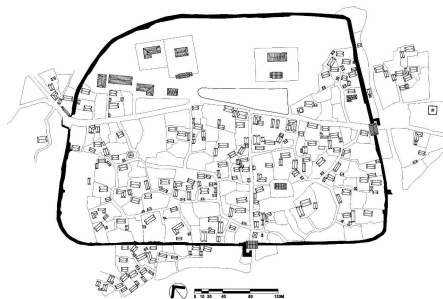


Figure 2. Site map of Nak-an Village in 2011 (From the author, 2011)



Figure 3. The village view of Nak-an

리, 남내리, 서내리 3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 끝자락이 백이산과 제석산사이로 남해안과 맞닿아 있으며, 북쪽의 금전산 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읍성의 남쪽으로 낙안 들녘이 길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낙안의 지형은 취락형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성읍마을의 민속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민속마을로써 1983년 6월 14일 사적 302호로 지정되었다.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984년부터 낙안읍성 복원 사업을 추진되었고, 사업 이후 당초 199호, 800여명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82세대에서 202명이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성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북문이 없는 동문·서문·남문의 3개 대문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내의 간선도로는 T자형의 동선 구조로써 동문과 서문을 잇는 굴곡진 동서대로와 만나는 거의 직선의 남북대로가 있다. 성내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객사와 동헌을 비롯한 관아들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시장과 민가가 자리 잡고 있다.

### 3. 낙안읍성 전통민가의 형식

낙안읍성 내의 민가들은 대부분이 초가집으로 가옥의 절대 건립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이민족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한국의 전통양식을 담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건립된 주거건축으로 한정하였다. 한정된 범위의 연구대상은 읍성 내에 위치하며 건축적 평면의 형태가 잘 남아있는 36채의 가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안채의 규모별로 가옥 수를 조사한 결과 정면 2칸에서 6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sup>7)</sup> 보편적으로 4칸 가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5칸을 벗어나는 가옥은 드물었다.

민가의 채 구성은 안채와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채는 헛간채나 일부 아래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거주공간인 사랑채의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안채의 형태는 주로 一자형태이며, 비록 가옥의 수는 적게 나타났지만 곱은자집의 형태도 보였다. 한개의 용마루 아래 단면의 공간분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평면형식을 나누면 홑집과 겹집<sup>8)</sup>으

2) 순천시·한국민속학회, 『낙안읍성의 삶과 앓』, 순천시, 2011, p.35. 이렇듯 1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남해안 일대가 왜구의 공격 받았으며 기록상 5회의 왜구의 침략이 있었다.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36』, 문화재청, 2011.10.

3) 변동명, 『낙안과 낙안읍성』,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1.

축성 이후 최초의 기록으로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부터 낙안성은 오로지 석성으로 표기되어 오고 있다.

4) 순천시, 앞의 책, p.15.

5) 길종원, 신웅주, 「낙안읍성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2호 통권37호, 2010.05. p.4.

6) 송주균, 『낙안읍성민속마을 세부현황종합조사보고서』, 1985

7) 송주균, 앞의 책

로 나뉜다. 읍성 내의 가옥에서는 홑집형 가옥이 대부분이지만 겹집형 가옥도 발견되었다.

Table 3. The general feature of the research subjects

순번	가옥	건축시기	채 구성		안채 규모 (間)		순번	가옥	건축시기	채 구성		안채 규모 (間)	
			안채	부속채	정면	측면				안채	부속채	정면	측면
1	전시가옥	20초	1	0	3	1.5	19	김진가	19중	1	1	3	1.5
2	이인애가	19초	1	0	4	2.5	20	김봉우가	20초	1	2	6	4
3	문종곤가	19초	1	1	4	2	21	곽형두가	19말	1	3	4	2
4	송태현가	19초	1	1	3	1.5	22	장종철가	19중	1	2	4	1.5
5	황정애가	19말	1	1	4	2.5	23	윤기남가	19초	1	1	4	1.5
6	김치안가	19말	1	2	4	2	24	김개심가	19중	1	2	5	1.5
7	박창복가	18말	1	2	4	1.5	25	박정자가	18중	1	1	3	1.5
8	조영남가	18말	1	1	5	2	26	배문근가	20초	1	1	4	1.5
9	김석훈가	19초	1	4	5	1.5	27	김길영가	19말	1	2	4	1.5
10	윤백환가	19말	1	1	4	3.5	28	기념품점	18중	1	1	2	1.5
11	자연생태 체험장	19중	1	3	4	1.5	29	박의준가	19중	1	3	4	2.5
12	국악인의 집	19중	1	3	5	3.5	30	천연염색 체험장	19초	1	3	3	1.5
13	조순열가	19초	1	2	4	1.5	31	김영자가	19초	1	1	4	1.5
14	국악당가	19말	1	1	3	1.5	32	최선준가	18초	1	0	2	2.5
15	오금심가	19중	1	3	4	1.5	33	송갑득가	19말	1	3	4	2
16	조영권가	19중	1	2	3	1.5	34	김관엽가	20초	1	1	4	1.5
17	박윤복가	19중	1	2	3	1.5	35	김대자가	19초	1	1	4	2
18	남내회가	19말	1	1	4	2	36	주두열가	19초	1	2	3	1.5

### 3-1. 배치 형식 및 특성

#### (1) 배치형식

민가에서는 대체로 안채가 먼저 지어지고 부속채는 여건이 갖추어진 후에 건립된다. 오래전부터 집안의 경제력은 주거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역으로 경제력의 바탕을 경제방식과 경제수준으로 나누어 주거 형태와 연관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낙안읍성 내의 주민들의 농업방식은 집단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논농사와 가옥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낙안읍성 전통민가의 배치 유형을 안채 평면 형식, 바깥채 형상 및 수량, 그리고 안마당을 매개로 한 안채와 바깥채의 위치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분류해 보면 다음의 Table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Table 4.를 살펴보면 ㄷ자형 배치와 ㄱ자형 배치가 각각 14채와 13채로 전체 연구대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배치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ㄷ자형 배치와 ㄱ자형 배치가 많은 이

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천득염, 『남도전통주거론』, 경인문화사, 2004

전남의 내륙지방에 많이 나타나는 홑집은 한 개의 용마루 아래 방이 한 줄로 된 집을 말하며, 겹집은 두 줄 이상으로 된 집을 칭한다.

유는 부속채의 수가 1채나 2채이기 때문인데, 이는 연구대상 가옥의 거주민들은 대부분이 소작농을 하는 서민으로 읍성 안의 정해진 대지 내에서 많은 수의 부속채를 지을 수 없었던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튼ㄱ자형 배치는 안채의 좌 또는 우측에 안채와 직각으로 1동의 부속채가 추가되어 이루어진다. 튼ㄱ자형과 튼ㄴ자형 배치의 차이점은 부속채가 안채의 정면에 위치하느냐(튼ㄱ자형) 후면에 위치하느냐(튼ㄴ자형)에 따른 것이다. 한편 튼ㄴ자형 배치는 대개 외부공간(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2동의 부속채로 구성되며 Table 4.와 같이 다양한 변형이 발견된다.

Table 4. The layout types of the research subjects

배치 유형						
	一자형	二자형	튼ㄱ자형 - 1	튼ㄱ자형 - 2	튼ㄴ자형	산채형
가옥 수	3	3	3	11	2	1
배치 유형						계
	튼ㄱ자형 - 1	튼ㄱ자형 - 2	튼ㄱ자형 - 3	튼ㄱ자형 - 4	튼ㄱ자형 - 5	
가옥 수	2	1	8	1	1	36

Table5를 보면 튼ㄱ자형 배치는 전 시기에 걸쳐 분포하나 시대가 후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임을 알 수 있으며 시대가 후대로 갈수록 튼ㄴ자형 배치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후대로 갈수록 가옥을 이루는 채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활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Table 5. The distribution of building date of layout types

배치유형 \ 건립연도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계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一자형	1			1			1			3
二자형				1	1	1				3
튼ㄱ자형		2	2	4	2	3	1			14
튼ㄴ자형				1			1			2
튼ㄴ자형				2	6	4	1			13
산채형				1						1
합계	1	2	2	10	9	8	4	0	0	36

후대에 갈수록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력이 증대되어 거주민의 경제력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주거 욕구가 반영되어 가옥을 이루는 채의 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여겨지며, 배치형식도 튼ㄴ자형 배치가 주로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속채의 주기능은 헛간채, 짚간채, 변소, 창고, 축사, 아래채 등으로 온돌방이 등장하지 않으며, 순수한 농사를 위한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부속채의 위치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대지의 남쪽인 안채 앞으로 위치한다. 이는 부속채가 안채 뒷면으로 위치하였을 때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2) 좌향

민가에서 안채의 좌향 설정은 그 평면형식과 아울러 주위 환경을 살펴 대지에 채를 앉히는 주거 배치의 출발점이 된다. 또 대문은 단위 주거와 마을길이 만나는 경계부의 한 지점에 위치하여 그 둘 사이를 연계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안채와 대문의 관계는 안으로 주거 배치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고 밖으로는 단위 주거와 마을길의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인자이다.<sup>9)</sup>

연구대상의 안채 좌향은 남서향(36채 중 18채)과 남남서향(36채 중 5채)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한국의 전통촌락의 입지인 배산임수의 원칙으로 배치된 낙안읍성은 남서향으로 배치되어있다. 이러한 기본 환경에 맞추어 설정된 인위적 도로 구성과 지형에 의하여 성내가옥의 배치도 남서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남향은 6곳으로 박창복가옥을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 가옥에서 안채가 남쪽을 향해 배치되었다. 박창복가옥은 남북방향으로 조성된 통과도로와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 북서향으로 배치된 특별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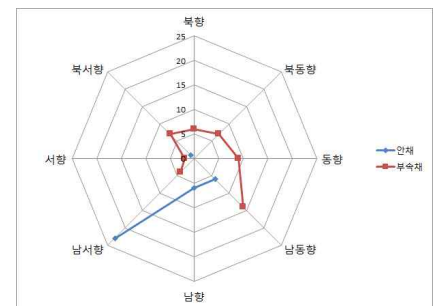


Figure 4. The distribution of the orientation of main building and attached building

안채의 좌향이 남서향과 남남서향인 가옥 중 튼ㄱ자형 배치와 튼ㄴ자형 배치가 73%를 차지함으로 부속채는 남동향 또는 북동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속채의 향은 남동, 동, 북동, 북서, 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문의 위치는 안채의 좌향과는 다르게 남쪽 부근에 두루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안채와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채의 좌향과 다소 무관하게 서쪽, 동쪽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대문의 위치는 주거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안채의 측면에 위치하여 안채의 측면진입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대문의 위치는 집안의 안채와 집밖의 길 사이에 위치하므로, 대문의 위치 파악은 곧 안채와 길의 관계에까지 연장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9) 천득엽, 주남철 「전남지방 민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권 6호 통권8호, 1986.12. p.51.

한지만, 이상해,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7권9호 통권155호, 2001.09. p.204.

단서가 된다.

안채의 공간구성 요소 중 부엌은 64%가 서쪽에 위치하며 나머지 36%가 동쪽 또는 안채 중앙에 위치해있다. 부엌의 위치는 안채를 마주 보았을 때 왼쪽에 많이 위치하며, 안채의 좌향이 남향일 때는 서쪽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배치상의 특징으로는 대문의 위치가 부엌의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부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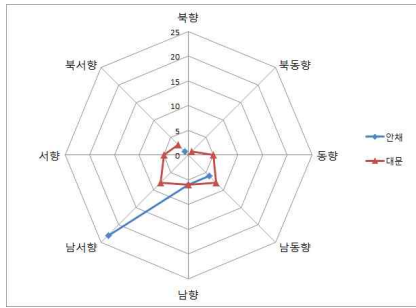


Figure 5. The distribution of the orientation of main building and the location of main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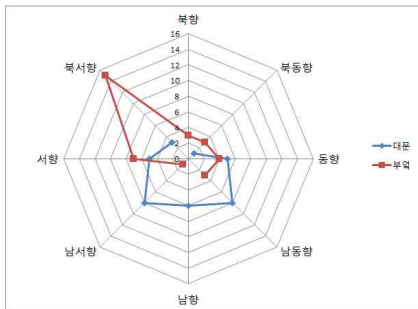


Figure 6. The distribution of the location of main gate and kitchen in main building

앞쪽으로 부속채가 형성되어있다. 이는 부엌의 고유 기능으로 보아 내밀성을 확보하고 동선을 고려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또한 여성의 공간으로써 가장 안쪽에 배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대문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차단하고 부속채와의 연결동선을 짧게 하여 작업을 위한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안채와 부속채의 관계를 기술한 배치 형식과 대문과 부엌의 위치관계를 연관지어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대문의 위치는 주로 안채의 측면에 놓이며, 부속채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이는 대문의 위치가 안채 측면에 놓임으로써 주거로의 진입시 시선이 안채에 직접 와 닿지 않도록 처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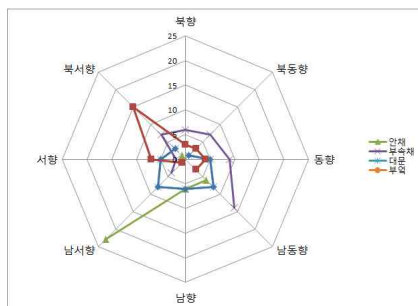


Figure 7. The distribution of the orientation of main building and attached building and the location of main gate and kitchen in main building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도가 배치에 반영되어 연구대상 중 튼그자형 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채를 가지고 주거 영역을 구분하여 안마당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안채와 가로와의 사이에서 개방형 마당을 형성한다.

안채와 대문의 위치 관계를 통하여 안채와 가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대문이 안채의 측면인 남동쪽에 놓임으로

주거가 접하는 가로 또한 남동쪽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안채와 가로의 위치 및 좌향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치유형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보통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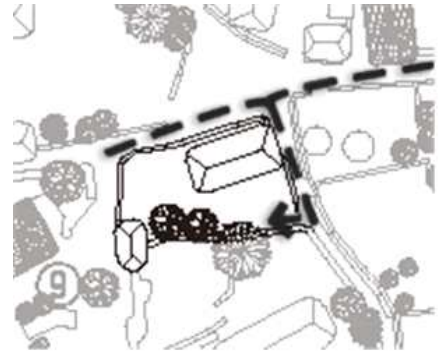


Figure 8. Site plan of Kim-Jin house

가 남서향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배치의 대표형식인 튼그자형 중 부속채가 안채의 서쪽에 위치하는 튼그자형-2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10)</sup>

그 결과 안채 정면에 길이 있더라도 그곳에 면해 바로 대문을 내지 않고 안채의 측면에 별도의 길을 내어 안채 측면을 향한 진입을 유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Figure 8).

### (3) 진입방식

외부에서 주거영역 내로의 진입방식은 안채의 배치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외부에서 가옥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크게 정면진입, 측면진입, 모서리진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측면진입은 세부적으로 측면진입, 부속채측면진입, 안채와 부속채사이진입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이유는 진입방식이란 가옥으로 진입함에 따른 시선처리 및 안채까지의 진입동선, 진입에 따른 마당의 성격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대지와 가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내의 간선도로는 동문과 서문을 잇는 동서대로와 거의 직선의 남북대로가 만나 T자형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객사와 동헌을 비롯한 관아들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시장과 민가가 들어섰다. 민가 밀집지역은 남북방향의 가로가 많이 발달하여 있다. 이와 같은 가로체계의 영향을 받아 대지형태 또한 남북방향으로 길게 나타난다. 안채는 거주하기에 적합한 남향을 취하기 위하여 대지의 북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대지형태와 가로의 관계는 다수의 가옥에서 대지로의 측면진입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대지로 들어가는 진입가로의 비중은 남북방향의 가로가 동서방향의 가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 전체 중 36%가 정면진입형으로 나왔으며 측면진입형은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낙안읍성의 가로체계에 의해서 나눠진 민가의 대지는 민가의 구성에 있어 일관된 하나의 방식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낙안읍성 민가의 주진입방식인 측면진입형의 경우, 남북방

10)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성내의 전통민가로 한정하였다는 부분에서 본문의 내용이 낙안읍성 내의 건물들 전부의 특징이 된다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주거로 한정하여 주거의 배치와 외부공간에서 나타난 현상의 경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향 가로에서의 진입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측면진입형은 안채와 동선이 90° 방향으로 꺾여 진입함으로써 시선이 안채와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도록 하여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선 처리를 하였다. 또한 마당을 이분화하여 가로와 가옥사이에 완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면진입형보다 마당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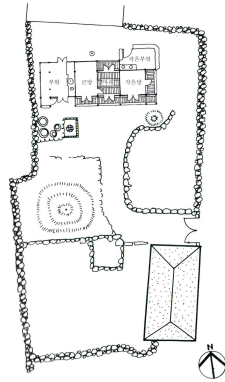


Figure 9. Site plan of Hwang jeong-ae house

민가로의 진입방식의 특징은 간선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여 반드시 전곡(轉曲)해서 진입함으로써 외부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는 점이다. 또한 가능하면 대문에 이르는 막힌도로를 제주도의 올레처럼 길게하고 구부러서 계속적인 시각의 변화를 시도하며, 대문에서도 다시 한 번 전곡시킨다. 특히 간선도로에 바로 면한 집에서는 차단 담을 쌓아서 ‘ㄱ’자로 구부리는 공간처리 기법을 쓰고 있다.

Table 6. Entry mode type

진입 방식	정면진입	측면진입	부속채측면진입	안채와 부속채 사이진입	모서리진입
개체 수	13	8	7	4	4
마당의 성격	개방성 > 폐쇄성 (11 > 2)	개방성 > 폐쇄성 (7 > 1)	폐쇄성 (7)	폐쇄성 > 개방성 (3 > 1)	개방성 (4)
가로 유형	막힌도로 > 통과도로 > 간선도로 (6 > 5 > 2)	막힌도로 > 통과도로 (7 > 1)	막힌도로 > 통과도로 (4 > 3)	간선도로 = 통과도로 (2 = 2)	통과도로 > 간선도로 (3 > 1)
배치 주 유형	튼ㄱ자형 배치	튼ㄷ자형 배치	튼ㄷ자형 배치	튼ㄱ자형 배치	튼ㄱ자형 배치
진입 가로 방향	동서>남북 (9 > 4)	남북>동서 (7 > 2)	남북>동서 (5 > 2)	남북=동서 (2 = 2)	남북=동서 (2 = 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낙안읍성 전통민가의 안채와 부속채, 대문의 배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안채 정면이 남서향하도록 안채를 배치하고 대문이 안채의 측면에 위치함으로써 안채 정면이 아닌 측면을 향해 주거 영역으로의 주진입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하였다. 주된 배치형

식인 튼ㄱ자형 배치는 안채의 측면, 대문과 대칭되게 부속채가 위치한다. 이는 최소한의 채를 가지고 주거 영역을 구분지어 안마당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2. 외부공간(마당)과 배치의 관계

한국민가의 경우 집들이 서로 용기종기 모여 경계에 울타리를 두르고 사립문 또는 대문간을 내는 형태로 취락을 이룬다. 민가의 기본적인 배치는 안채와 마당으로 이루어지며 규모가 큰 경우, 필요한 공간에 따라 독립된 별채로 들어선다.

전통주거의 외부공간인 마당은 담장과 채 또는 채와 채에 의해 공간이 구획된다. 이러한 외부 공간은 반가인 경우 마당의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있으나, 민가에서는 바깥마당, 안마당, 뒷마당 정도로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채와 채 또는 채와 담장으로 구획되는 마당의 성격을 채배치형태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낙안읍성 민가의 마당을 구획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한국 전통민가의 배치는 마당을 중심으로 채가 늘어나면서 마당을 둘러싸는 경향을 보인다. 서민의 주거는 집안의 경제력이 약하였으므로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주공간인 안채를 마련하는 일이 보통이었으며, 안채는 보통 一자형의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안채는 주거공간으로써 기본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인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조권 확보이다.

읍성 내 민가는 대지 내에서 안채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 및 부속채로부터 이격시켜 배치하며, 일조권이 가장 좋은 남향으로 하기 위하여 대지의 북쪽에 안채를 배치한다. 대지의 공간분할을 보면, 안채의 앞에 마당을 두어 대문에서 안채로 진입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반 내부적 성격을 갖는다. 읍성 내 연구대상의 92%가 대지 내 안채의 위치를 북쪽으로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마당의 구성은 안채와 부속채로 둘러싸인 형태로 주로 한마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 중 김관엽家만이 안채 위로 부속채가 배치되어 두마당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7. The relationship of layout type and external space

배치 유형 마당의 성격	一자형	二자형	튼ㄱ자형	튼ㄷ자형	튼ㄷ자형	산재형	합계
개방형	3	3	10	1	5	1	23
폐쇄형	-	0	4	1	8	-	13
합계	3	3	14	2	13	1	36

마당의 성격은 진입하는 가로에 있어서 공간의 열려있는 정도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마당 성격은 개방형이 폐쇄형보다 10채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 중에서 튼ㄱ자형 배치가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폐쇄형에서 튼ㄷ자형 배치가 61%로 가

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읍성 내의 거주민들은 집단적 노동력을 요하는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가는 형태로써 공동체적 의식이 강하므로, 가로에서 가옥으로의 시선을 차단시키기 보다는 서로 마주치며 소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개방적인 마당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전술했던 내용과 연관시켜 이야기하자면, 가옥의 배치는 개방형 마당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문의 반대쪽에 부속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앞에서 전술했던 내용은 읍성 내의 가로체계에 의해서 나뉜 대지조건에 의해 채들의 배

Table 8. The relationship of external space and the direction of access road

마당의 성격	개방형		폐쇄형	
	동서	남북	동서	남북
진입가로 방향				
사례				

치가 이루어지며 주거로의 진입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3-3. 가로와 배치의 관계

낙안읍성의 가로와 가옥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 가로를 위계와 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Figure 11.과 같이 ‘간선도로’, ‘통과도로’, ‘막힌도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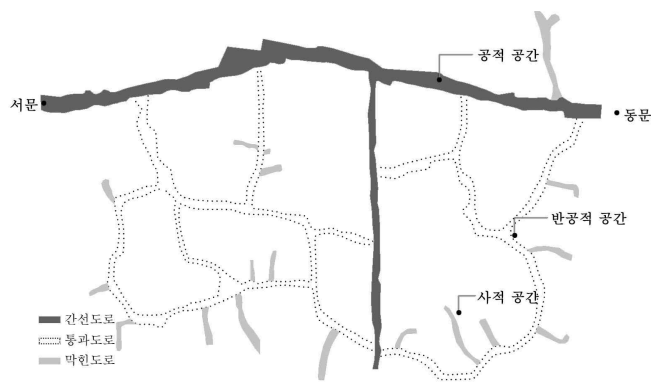


Figure 10. The road type in Nak-an Village  
( Based on figure from Lee young-mi )

가옥으로의 진입은 가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한 간선도로, 통과도로, 막힌도로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경우는 14%, 통과도로에서는 38%, 그리고 막힌도로에서는 48%로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형식

보다는 통과도로와 막힌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단계적 진입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과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가옥에서는 튼ㄱ자형 배치를 막힌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가옥에서는 튼ㄷ자형 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가옥은 가로변에 직접 면하여있고 내부담장 또는 부속채가 외부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문의 위치는 이러한 가옥의 배치와 관련하여 대지의 측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안채에 외부시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함을 알 수 있다.

Table 9. The relationship of layout type and access road direction

배치유형 가로유형	一자 형	二자 형	튼ㄱ 자형	튼ㄴ 자형	튼ㄷ 자형	산재 형	합 계
간선도로	2		2		1		5
통과도로		1	8	1	4		14
막힌도로	1	2	4	1	8	1	17
합 계	3	3	14	2	13	1	36

통과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가옥들의 배치형태는 튼ㄱ자형이 주를 이루며, 남북방향의 가로와 동서방향의 가로에서 진입하는 두 경우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 마당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방형 마당을 가지고 있는 배치유형 중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튼ㄱ자형 배치가 통과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가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가옥들의 배치형태는 개방형 마당을 가진 튼ㄱ자형 배치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막힌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가옥들의 배치형태는 튼ㄷ자형 배치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남북방향의 가로에서 진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다.

막힌도로를 통하여 진입하는 튼ㄷ자형 배치는 전체 튼ㄷ자형 배치 중 폐쇄형 마당을 가진 경우의 62%를 차지한다. 막힌도로의 튼ㄷ자형 배치는 폐쇄형 마당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막힌도로에 접해 있는 가옥은 전체적으로 개방형을 띄고 있다. 이는 전체 연구대상 중 막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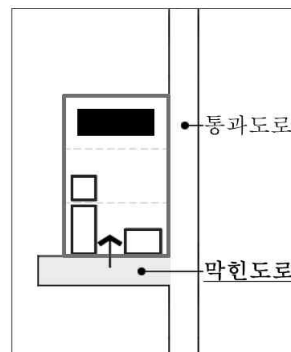


Figure 11. The dead-end road type



Figure 12. The example of dead-end road type -  
Natural ecological experience center

11) 이영미, 「낙안읍성 길의 커뮤니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3호 통권 38호, 2010.08.

로에 면한 가옥의 비율이 높고, 동시에 개방형 마당을 가진 가옥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안읍성 내의 가옥들의 가로와 배치의 관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막힌도로를 이용하여 가옥에 진입하고, 막힌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가옥들의 대표적인 배치 형태는 튼ㄱ자형이며, 대지형태는 남북방향으로 긴 형태를 갖고 있다. 진입가로방향은 읍성 내의 간선도로 체계인 남북방향의 가로는 주를 이룬다. 막힌도로를 이용하여 가옥에 진입하는 경우 개방형 마당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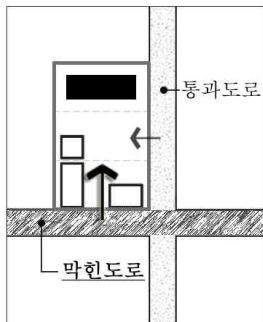


Figure 13. The most typical road type  
- dead-end road type



Figure 14. The example of dead-end road type - Namnae Hall

남북방향으로 길며 남북방향의 가로를 주진입가로로 하고 있다. 채의 배치는 대지의 북쪽에 안채를 남서향으로 배치하고 주진입가로에서 진입하기 위해 안채의 측면에 대문을 위치시켜 주거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개방형 마당의 형성을 위해 대문의 반대쪽에 부속채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낙안읍성의 가로체계에 의해서 나뉘진 민가의 대지는 민가의 구성에 있어 일관된 하나의 방식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4) 가로와 배치의 관계는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형식보다는 통과도로와 막힌도로와 같은 2차, 3차 가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단계적 진입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옥으로의 측면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서방향의 통과도로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통과도로에서 남북방향으로 들어가는 막힌도로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낙안읍성 전통민가의 배치와 외부공간구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전통민가에 영향을 준 근본적인 요인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본 연구의 성과가 추후 타지역 주거 형태와의 연계성 및 비교 연구의 표본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 참고 문헌 >

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2. 천득염, 『남도전통주거론』, 경인문화사, 2004
3. 변동명, 『낙안과 낙안읍성』,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1.
4. 송주균, 『낙안읍성민속마을 세부현황종합조사보고서』, 1985
5. 순천시 한국민속학회, 『낙안읍성의 삶과 앎』, 심미안, 2011.
6.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36』, 문화재청, 2011.10.
7. 천득염, 주남철 「전남지방 민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권 6호 통권8호, 1986.12.
8. 김종원, 신웅주, 「낙안읍성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2호 통권37호, 2010.05.
9. 한지만, 이상해,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7권9호 통권155호, 2001.09, p.204.
10. 이영미, 「낙안읍성 길의 커뮤니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3호 통권 38호, 2010.08.

접수 : 2013. 01. 10  
심사일자 : 2013. 01. 15  
게재확정 : 2013. 01. 22

## 4. 결론

이상에서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낙안읍성 전통민가의 배치 및 외부공간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낙안읍성 민가의 배치형식은 튼ㄱ자형 배치와 튼ㄷ자형 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읍성 안의 거주민들의 대부분이 소작농임으로 대지 내에서 많은 수의 부속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기별 배치유형을 살펴보면, 전 시기를 걸쳐 튼ㄱ자형 배치가 발달해있으며, 후대에 갈수록 튼ㄷ자형 배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대에 갈수록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대되어 거주민의 경제력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 욕구가 반영되어 가옥을 이루는 채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안채의 좌향은 전체적으로 남서향의 비중이 강하게 보이며, 대문의 위치는 안채 측면에 위치하고 부속채는 대문의 반대쪽에 가장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이는 대표적인 배치인 튼ㄱ자형의 안채와 부속채, 즉 최소한의 채를 가지고 주거영역을 구분지어 안마당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배치는 개방형 마당이 형성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그 결과 안채 정면으로 길을 면하더라도 그곳에 면해 바로 대문을 내지 않고 안채의 측면에 별도의 길을 내어 안채 측면을 통한 진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3) 읍성 내의 가로 체계는 남북방향이 동서방향보다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민가의 대지형태는 장변이